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보도일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마케팅지원실 전재희 실장(02-3014-5714)
	한국바이오협회	정책기반팀 김지운 대리(031-628-0023)
	한국전자산업협회	기획조사팀 최영호 팀장(02-3461-9407)

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각 산업협회, 국가정보원과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 핵심기술 취급 인력 보호(디스플레이·전자·바이오) 및 국제공통기술문서(CTD) 보호(바이오)를 위한 가이드 라인 제작·배포 -

- 전 세계적인 공급망·기술경쟁이 국가별로 가속화되면서 경제안보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주변국에 의해 우리 핵심 산업의 기술·인력 탈취시도가 증가하는 등 기술보호 영역은 더이상 민간에 국한된 일이 아닌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다.
- 국가정보원(원장 김규현)은 이러한 문제점을 조기에 인식, 18년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우리 6대 산업 대상 민관 TF를 발족하여 기술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에 앞장서고 있다.
 -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생명공학 각 분야 협회들과 함께 기술보호 민관 TF를 가동하면서 핵심인력 보호방안 및 해외 인허가 목적 기술 문건 수출시 보안 대책 등의 내용이 담긴 기술 보호 가이드 라인을 제작·배포하였다.

<디스플레이산업 핵심 인력 보호 가이드 마련>

- '04년 이후 지난 17년간 세계 시장을 선도 중인 디스플레이산업은 경쟁국의 기술 탈취로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산업이다. 경쟁국은 막대한 자금으로 국내 기술을 흡수하고 있으며 우리 업계는 초격차 기술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디스플레이산업은 고도화된 공정 특성 상 문건에 의한 단순 기술 유출보다는 핵심 인력이 보유한 노하우 유출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 최근 5년간 디스플레이산업 기술 유출이 적발된 건수는 19건으로 국내 국가핵심기술 중 가장 많은 건수가 적발되었다. 또한 그 방법도 일반적인 인력 헤드헌팅에서 나아가 리서치 업체를 통한 정보 수집, 산학협력 명목의 자료 요구, 해외 기업을 우회한 M&A 등으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
- '21년에 2기를 발족한 디스플레이 산업기술보안협의회는(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에버캠텍, 에스에프에이, 동진썬미켄 등 15개사 참여) 이러한 핵심 인력 유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문제 제기 후, 별도의 TF(실무 위원장사 에버캠텍)를 구성하여 채용부터 퇴직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친 '핵심인력 보안 가이드' 를 제작, 5월에 업계에 배포하였다.
 - 본 가이드는 중소·중견 기업이 놓치기 쉬운 기본적인 관리 방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대기업에서 이미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중소·중견기업용으로 보편화 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 새롭게 적용되는 정부의 강화된 관리 지침과 최근 현장에서 발생한 기술 유출 사례 분석을 통해, '핵심인재'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업계의 효율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이동욱 부회장은 본 가이드가 그 간 업계의 난제였던 '핵심인력' 의 기준 제시 및 인력 보호에 대한 업계의 경각심을 제고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가이드 기반의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본 성과를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차전지 분야 핵심인력 보호 가이드 마련>

- 이차전지 산업은 '11년도부터 일본을 제치고 10년간 세계 1위(소형)를 달성하고 있으나, 최근 해외 경쟁사들이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내 전문 인력을 고액 연봉으로 채용하여 기술 유출을 요구하는 등의 우려에 처해있다.
 - 현재 확인된 이차전지산업 기술 유출 사례는 '15년도부터 6건이며, 과거 이직을 통한 기술유출을 시도했으나 최근 자문 및 리서치 업체의 자료 수집 요청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 이차전지 산업보안협의회(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등 11개사 참여)는 이차전지 핵심기술 취급 인력의 보호 가이드이라는 주제를 도출하고, 삼성SDI, 엘앤에프의 주도 아래 「이차전지산업 기술보안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 핵심기술 취급인력의 보호에 취약한 중소·중견 기업에게 유출 예방 및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서 실행 중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가이드 내용을 제작했으며,
 - 본 가이드는 핵심기술 취급인력의 유출 보안을 위해 입사부터 퇴직까지 관리 방안에 대한 보안교육 및 유출 징후 파악 시 행동요령 등이 포함되었다.

- KBIA 정순남 부회장은 “최근 이차전지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핵심기술 취급 인력 보호가 매우 중요해졌으며, 인력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방법 등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바이오 분야 CTD 수출 승인 판단 기준 및 핵심인력 보호 기준 마련>

- 바이오 산업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바이오·제약 기술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기술 보호를 위해 본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특히, 항체치료제, 보툴리눔 독소제제 등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심사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 국제공동기술문서(CTD) 제출을 기본으로 하고, 임상자료와 비임상시험 자료 등의 제출을 통해 안전성, 유효성 평가지표를 확보하고 전반적인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 생명공학 분야 산업보안협의회(삼성바이오로직스, 대웅제약,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12개社 참여)는 국가핵심기술의 내용을 포함하는 국제공동기술문서의 수출 승인 판단기준과 핵심 인력 관리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는 「생명공학 분야 기술 보호 가이드라인」을 올 1월 배포하였다.
 - 수출 승인 판단기준 부분에는 국가핵심기술 수출 신고/승인 절차, 신청 기준 및 요건과 문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체크리스트 및 관련 법률, 시행령, 기밀 유지 서약서 양식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핵심 인력 관리 부분에서는 핵심 인력의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인력의 관리 방안 및 핵심기술 유출 실태와 원인, 유출 대응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보호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와 기업의 행정처리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 실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 한편, 각 산업 협의회가 제작한 가이드라인은 각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디스플레이 분야(<https://www.kdia.org>)
- 이차전지 분야(<http://www.k-bia.or.kr>)
- 생명공학분야(<https://koreabio.org/>)

첨부 1**디스플레이·이차전지·생명공학 산업 국가핵심기술 List**

디스플레이산업
8세대급(2200x2,500mm) 이상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 공정기술은 제외)·구동기술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구동 기술
이차전지산업
전기자동차용 등 중대형 고에너지밀도(파우치형 265Wh/kg이상 또는 각형은 파우치형의 85%)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리튬이차전지 Ni 함량 80% 초과 양극소재 설계, 제조 및 공정기술
600mAh/g 이상의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생명공학산업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1만 리터급 이상의 동물세포 배양/정제 공정기술)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보툴리눔 독소를 생산하는 균주 포함)
원자현미경 제조기술(True non-contact mode 기술, Narrow Trench 측정기술, 30nm 급 이하 반도체소자 3차원 분석기술, 300mm 이상의 대면적 시료 나노 계측기술, SPM 융합기술)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다중 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 (3종 이상, 민감도 및 특이도 95% 이상 성능 구현)